

사무엘기상 개요

사무엘기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전환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.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책의 제목입니다.

1. 사무엘 (1-8 장): 이스라엘의 사사, 선견자, 제사장이었습니다. 사무엘의 부모님은 엘가나와 한나입니다. 사무엘기상 1 장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겪는 고통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음을 적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.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공평하신 분이시며,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(사무엘기상 2: 1-10).
 - 1) 사사: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었고,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(삼상 7:15-17)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 - 2) 선견자: "하나님의 사람," "예언자" (삼상 9:9), 선지자와 같은 말로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.
 - ㄱ.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사사 시대에는 "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,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" (삼상 3:1)데, 이제 주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.
 - ㄴ. 주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,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기에 "온 이스라엘은,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" (삼상 3:20)고 하며,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에 "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(삼상 4:1)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 - 3) 제사장: 사무엘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수행했습니다. 삼상 7:9 과 삼상 10:8 에 보듯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.
2. 사울(9-15 장):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등장과 후퇴
 - 1) 왕정으로 전환하는 이스라엘: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하자,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"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,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" (삼상 8:7)라고

말씀하시고,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십니다.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왕정 체제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.

2)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:

ㄱ.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던 시기에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 대신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(삼상 13 장),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(삼상 15 장).

ㄴ.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고, 주님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고 (삼상 13:14), “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,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” (삼상 15:23)고 전합니다.

ㄷ.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,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박해하면서 힘을 소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.

3. 다윗(16-31 장):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

1) 주님께서 함께 계심: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“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” (삼상 16:13)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.

2) 환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:

ㄱ. 사울을 피해 적국 블레셋에까지 도망해야 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해야 했지만, 시편 34 편과 56 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.

ㄴ. 블레셋을 떠나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지낼 때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. 성경도 “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” (삼상 30:6)고 적고 있습니다. 시편 54 편, 57 편, 63 편, 142 편에서도 이 광야 시절을 배경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